강진골 도자기빚기 한창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 12회 강진 청자문화제' 행사장. 11일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물레를 이용해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8일 개막한 청자축제는 오는 16일까지 계속된다.

/고경석기자 ksgo@

광산구 운남 주공 임대아파트 입주민들

"분양가 낮추고 건설원가 공개를"

주민들 "재감정으로 분양가만 높아져"

住公광주·전남본부서 2시간 항의 집회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주공 6단지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객관적인 아파트 분양가 책정과 건설원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갖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운남동 주공 6단지 임대 아파트는 당초 연초에 분양전환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 28일 임대주택법 관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재감정 평가를 받게돼 분양이 늦어지고 있다.

개정된 임대주택 관련법에는 '감정평가 금액 2개 중에서 높은 금액이 낮은 금액의 110%를 초과하면 재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운남동 주공 6단지 공공임대 아파트는 2개 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이 각각 9천65만원과 1억500만원으로 개정된 조항에 해당돼 재감정이 실시되고 있다.

주민 박해림(50)씨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8천800여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재감정 등으로 분양가만 높아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임대아파트 평가에 주변시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인근 아파트는 1천만원~2천여만원을 들여 수리 및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라 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 이를 근거로 감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에 분양된 인근 주공 7·8단지 아파트보다 최고 1천만원 가까이 분양 가격이 비싸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주택공사 측이 건설원가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한편 입주민 300여명은 지난 11일 주택공사 광주·전남 본부에서 2시간여 동안 항의집회를 가졌다.

운남동 주공 6단지 12개동 아파트에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1천148세대가 입주해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책 빌려다 보세요"

순천대 도서관 개방

순천대학교(총장 장만채)가 지난달부터 지역민들에게도 대학도서관 자료를 대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민들은 교양자료는 물론 전문 학술서적에 이르기까지 소장된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게 됐다.

순천대학교는 앞으로 순천시립도서관과 상호이용협정을 맺고 도서관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 이용자들이 양 도서관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대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출증을 소지해야 하며, 대출증은 신분증과 사진 2매를 구비해 신청하면 발급된다. 문의 (061-750-5020)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완도에 300MW급 조류발전소 건립

내년부터 9천억 들여 횡간수도에 시공

완도 횡간수도에 300MW급 조류발전 시설이 건설된다.

완도군은 지난 11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9천여억 원을 들여 환경친화적인 조류발전 시설을 건설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한국 중부발전과 체결했다.

설비용량 300MW급 조류발전 시설이 건설되는 횡간수도는 노화읍과 횡간도 사이 해역으로 조류 속도가 평균 3~4노트에 이른다.

한국 중부발전은 지난 해 횡간수도를 방문, 투자 입지조건을 확인한 데 이어 목포대 신 재생에너지기술연구센터와 목포해양대 등에 의뢰해 1, 2차 자원 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 조류발전 시설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완도군은 조류발전과 해양에너지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해양관광, 해양생물, 해양스포츠 등 해양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경영혁신 자정 결의대회

농협 완도군지부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가 지난 11일 군지부 대회의실에서 친절과 청렴한 농협구현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완도군지부 임직원들은 농협이 무한경쟁시대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혁신·사업혁신·조직문화혁신 등 3대 경영혁신 과제를 추진해 농협발전에 크게 기여하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정동한 지부장은 "항상 밝은 마음으로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고, 고객들과 농협 임직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부산국제관광전 홍보관 운영

구례군 최우수상 받아

구례군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부산 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열린 '제 10회 부산국제관광전'에서 홍보관 운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산국제관광전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캐나다와 중국, 일본 등 35개국에서 195개 기관·단체가 참가했다.

구례군 홍보관은 산수유 무료시음회와 압화제작체험, 50여종의 구례향토농특산물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녹차음식 전문가 양성 앞장

보성군 농기센터 52명 수료

보성군이 녹차음식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녹차음식 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농업기술센터는 강사반·창업반 2개과정 52명을 대상으로 ▲녹차의 다양한 활용법 ▲녹차 마케팅 ▲대중적인 녹차음식 판매전략 등 이론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녹차요리·녹차음식 상차림 실습 교육을 2개월간 실시했다.

녹차음식 전문가 양성교육은 지난 2005년부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돼 2년간 76명을 배출했다.

임동식 소장은 "녹차음식 전문 리더로서 보성군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놀이체험 하면서 영어 배워요"

화순군 3억들여 영어타운 조성

'화순 영어타운'이 이달 중순 문을 연다. 화순군과 화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3억원의 예산을 들여 화순초등학교에 영어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영어타운은 ▲상황체험시설 ▲학습체험시설 ▲놀이체험시설 ▲편의 시설 등 다양한 영어체험이 가능한 내부시설을 갖추게 된다. 상황체험공간은 공항 출입국 심사대·매표소·비행기 내부, 호텔 및 레스토랑, 편의시설로는 쇼핑센터, 학습시설로는 레슨 룸과 홈스테이 등 가상공간이 들어선다.

화순영어타운에는 캐나다 출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2명과 내국인 강사 1명, 영어교사 1명이 상시 배치된다.

화순군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타운 체험이 좋은 반응을 얻을 경우 점진적으로 군민들에게도 확대, 개방할 계획이다.

/화순=조성수기자

편 가르기가 고착화되면서 오랫동안 감정의 골이 깊게 패여있는 나주에서 최근 보기 드문 모습이 연출됐다. 지난 10일 나주시의원들의 모임에서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시의원들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무소속 의원들이 만나자는 제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들여 이뤄진 이날 모임은 2시간 넘게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화합을 약속했다.

나주시의회 '화합물꼬' 트나

정칠현 〈사회 2부 나주 주재〉

나주시 의회는 그동안 반목과 질시로 일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의원 14명 가운데 5명의 무소속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으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날선 대립각을 보여왔다. 의원들간 대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되돌아왔다.

지역에서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날의 '화합 회동'이 실천으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불과 얼마전 나주에서 열렸던 박준영 전남지사와 시민과의 대화에도 대부분 의원들이 불참했기에 더욱 그렇다.

흔히 나주는 어른이 없는 도시라고 한다. 그만큼 지역여론을 선도하는 지도자들이 분열된 모습을 보여 신뢰를 잃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이날 모임은 나주시의회가 새로운 변신을 하지 않나 하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신정훈 시장까지 참석해 손을 맞잡았다니 더욱 기대가 크다. 의회의 양대 축과 시장이 한자리에서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 자체로도 180도 변화된 모습임에 틀림없다.

시민들은 끝없는 지역 갈등에 지칠대로 지쳐 있다. 이제라도 서로 상생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나주시의회의 용기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chjung@kwangju.co.kr